

미국 LA서 영광 농수산물식품 판촉행사 열려



전라남도 상설판매장서 내달 3일까지 총 12일간
영광굴비·모깃잎송편·태양초고추 등 10개 품목

영광군은 미국 LA 내 대형마트 전라남도 상설판매장에서 영광 농수산물식품 판촉행사를 23일(현지시간)부터 열었다고 밝혔다. 영광군 농수산물식품의 우수성을 해외시장에 알리고 수출 확대의 기반을 삼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되어있는 지역 내 수출업체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이 행사는 지

난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된다. 영광굴비, 모깃잎송편, 태양초고추, 고춧가루, 새싹보리분말 등 10개 품목(10만불 상당)을 LA 내 대형마트인 한남체인 플라튼점과 S-mart점에서 미국 교민을 비롯한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 판촉행사 기간 동안 라디오, 신

문 광고 등 현지 언론매체를 통해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식행사, 얼리버드 이벤트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아 영광군의 우수한 맛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 판촉행사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내 수출기업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여주길 바란다."며, "더욱 차별화된 수출 전략과 우리 군 농수특산품의 우수성을 더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신안군, '구글(Google) 섬마을청소년기자학교' 구글 플랫폼 활용 온라인 교육

신안군이 구글과 협력하여 '구글(Google)과 함께하는 섬마을청소년기자학교'를 연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튜브(YouTube) 등을 소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기업 중 하나다. '구글(Google)과 함께하는 섬마을청소년기자학교'는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섬마을청소년들은 지정된 플랫폼에 동시 접속하여 구글 코리아 뉴스랩의 이성규 티칭 펠로우와 함께 실시간으로 비대면·쌍방향

기자 수업을 하게 된다. 섬마을청소년기자학교는 ▲구글 검색과 뉴스(만들기) ▲사실확인(팩트 체크)과 뉴스(만들기) ▲구글어스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수업 마지막 시간에는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한 온라인 집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기 섬마을청소년기자학교의 일정은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이며, 매주 1시간씩,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청소년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신안군은 도초고, 신안해양과학고, 하의고 등 신안군 관내에 소재하는 6개 고등학교 학생과 같은 또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자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전화(061-240-3417)와 온라인(choi_gun@kore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구글과 함께하는 기자학교를 통해 우리 섬마을청소년들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해보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구글의 글로벌 커리큘럼으로 세상을 더 깊고, 더 넓게 보는 기자학교의 경험, 우리 섬마을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1기 '구글과 함께하는 섬마을청소년기자학교'의 호응이 좋으면 구글 코리아와 협의하여 교육 대상의 폭과 기회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취재본부

목포시, 코로나19 예방 '3행 3禁' 지킵시다

목포시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행 3禁'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 착용이 가장 현실적인 방역대책이라는 판단으로 방역수칙을 안내하며 시민 동참을 호소했다. 방역수칙은 ▶ 3행(行) ①마스크 착용하기 ②자주 손 씻기 ③사람 간 거리는 2m 이상 유지하기 ▶ 3금(禁) ①아프면 외출(여행)하지 않기 ②밀폐·밀집·밀접(3밀) 장소 방문 하지 않기 ③침방울이 튀는 행위, 신체 접촉 자제하기

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시민 마스크 쓰기와 방역 참여를 호소하는 홍보용 스티커 23,000장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식당, 점포, 학원 등 7,500여 개의 사업장과 대중교통 차량에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다가오는 휴가철과 여름방학 기간이 방역의 중대한 고비로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관광지 등 주변 위험시설을 재점검하며, 내 가족과 이웃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3행 3禁'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등 손님맞이 준비 한창

대표관광지 재개관 앞뒤 철저한 방역·환경정비

영암군이 왕인박사유적지 등 관광지 재개관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20일, 코로나 19 확산으로 문을 닫았던 수도권 지역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재개관한 바 있다. 영암군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임시휴관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왕인박사유적지, 도기박물관, 하정음미술관 등 문화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은 물론 꽃밭조성,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왕인박사유적지내 소소한



산책길 코스와 도기박물관 야외 지역작가 작품 전시회 및 상대포역사공원에서 문신재까지 왕인박사 힐링길 4km를 조성하며 다채로운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 19 시대의 안전하고 최고의 힐링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최

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추후 시설 개방은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7월 25일 종료와 코로나 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김준성 영광군수 '월급반납' 동참

4개월간 월 급여 30% 영광곳간에 쾌척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2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4월부터 4개월간 매월 급여의 30%인 9,369,880원을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에 기탁, 월급반납 운동에 동참하였다. 월급반납운동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정신적·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하여 참여하는 운동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5월에도 국가재난지원금 80만 원 전액을 영광곳간에 기탁하여 우리군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몸소 실천하였으며, 위기에 처한 지역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역복지분야 전반에도 총출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영암농기계임대사업소 바쁜 영농철 해결사

2분기 2463대 임대

영암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2분기 임대실적을 분석한 결과 농기계임대사업이 바쁜 영농철 농가들의 일손부족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3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34종 688대의 농기계를

운영하면서 올해 2분기에만 2,045농가에게 2,463대를 임대하여 2,555ha를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리기, 전동가위, 파종기, 승용예초기, 퇴비살포기 순으로 임대하여 부족한 일손을 대체하였으며, 70여건의 농기계 현장기술지원원을 통해 고장 및 작동미숙 등을

현장에서 직접해결하였다. 특히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시종면 북부사업소에서 퇴비살포기, 파종기, 굴삭기 등 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발작물 재배가 많은 시종, 도포, 신북지역 농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농업인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